

2016. 8. 30.[화]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기신문

2016년 08월 30일 (화)
02면 종합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내달 1~4일 평화누리길서 실시

3일간 100km를 달리는 '2016 DMZ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가 오는 9월 1~4일 경기도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기도와 김포, 파주, 연천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1천500여명의 전문선수와 일반인이 참가, 첫날 전문선수의 파주 캠프 그리브스 입소 및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대명항~김포C.C~문수산성입구~애기봉으로 이어지는 37km 김포 구간을 달리게 된다.

대회 2일차인 3일에 달리게 될 연천 구간(50km)은 연고대산 컨벤션 센터~고대산 임도~꽃봉산~성산~고대산, 마지막 날 진행될 파주 DMZ 일원 구간(13km)은 임진각 평화의 종각 광장~통일대교~에코뮤지엄~60T~64T~에코뮤지엄~통일대교~평화의 종각 광장 등이다.

/안경환기자 jing@

5.8 X 11.4 cm

세계일보

2016년 08월 30일 (화)
128면 전국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

내달 1일 평화누리길서 개막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3일간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가 9월 1일 평화누리길에서 펼쳐진다.

경기도는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과 공동으로 내달 1일부터 4일간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트레일 러닝이란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달리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을 말한다. 프랑스 울트라 트레일 뒤 몽블랑, 홍콩의 100km 울트라 트레일 등 국제대회가 유명하다.

첫날은 전문 선수 입소와 환영행사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리며, 본 대회는 2일부터 2박3일간 100km와 50km, 13km, 12km, 10km로 나눠 진행된다.

2일에는 김포시 구간을 달리며 코스는 대명항~김포CC~문수산성입구~애기봉 37km 구간이다. 3일은 연천군에서 연천공설운동장~성산~지장봉~고대산~꽃봉산~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50km 구간을, 4일은 파주시 코스로 임진각~통일대교~에코뮤지엄~임진강 군부대 순찰로~에코뮤지엄~임진각 13km 구간을 각각 달린다.

전문 선수는 100km와 50km(연천구간)에 참가하게 되며 일반인은 13km(파주), 12km(김포), 10km(연천) 구간에 참가할 수 있다.

5.6 X 18.6 cm

기호일보

2016년 08월 30일 (화)
03A면 종합

DMZ 따라 달려볼까... 내달 1~4일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함께 다음달 1~4일 DMZ 일대를 달리는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첫날은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전문선수 입소와 환영행사가 열리며, 본대회는 2일부터 김포·연천·파주 순으로 2박 3일간 진행된다.

2일은 김포시 대명항~김포CC~문수산성입구~애기봉 37km 구간이며, 3일에는 연천군 고대산~고대산 입도~꽃봉산~성산~고대산으로 돌아오는 50km 구간을 달린다.

4일은 파주시임진각~통일대교~एको뮤지엄~임진강 군부대 순찰로~एको뮤지엄~임진각 13km 코스로 구성돼 있다.

전문 선수들은 100km와 연천 50km 구간을 달리며, 일반인들은 김포 12km, 연천 10km, 파주 13km 구

간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메달, 티셔츠 등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dmzultratrail.com)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2-449-73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트레일 러닝 마니아들에게 DMZ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이란 트레일과 러닝의 합성어로

포장되지 않은 길이나 산, 들, 초원지대 등을 달리는 일종의 산악마라톤이다. 프랑스의 울트라 트레일 몽블랑, 홍콩의 100km 울트라 트레일 등 국제 대회가 유명하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